

동시통역 과정에서의 언어방향성과 생략 - 한영 vs. 영한 동시통역 데이터 비교

이 미 경
(경희대)

1. 서론

동시통역은 그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동시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루어내는 언어 간 의사소통의 중개과정이다. 실제로 다양한 언어조합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동시통역의 과정에서 통역사는 길게는 60%의 시간동안 청취와 재표현을 동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Gerver, 1975; Chernov 1979, 이태형 2005), 동시통역의 과정에서 통역사가 연사의 발화를 청취한 순간부터 보유지식을 활용하여 청취한 정보를 의미의 덩어리로 나누고 분석하여 도착언어로 재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이 불과 1-2초라는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거쳐서 통역사는 도착언어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연사의 발화를 청취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자신의 발화도 청취하면서 스스로의 논리를 점검하는 검증의 작업도 이어간다.

통역사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처리 자원(cognitive resources)을 사용하는 데 동시통역의 과정은 통역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자원을 최대 한계까지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질(Gile 1995)은 주의력 모델(Effort Model)에서 통역의 실패는 주어진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처리 용량이 통역사가 사용가능한 정보처리 자원을 상회하는 경우로 통역사는 해당 작업을 감당할 수 없게 됨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통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통역사의 사용가능한 정보처리 자원을 안배하여 통역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용량이 적시에 배치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동시통역의 과정 중 통역사는 청취, 이해, 재생산, 조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이때 사용가능한 정보처리 자원의 총량이 충분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집중력이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간순간 필요한 작업을 위해 집중력을 안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슬레진거(Shlesinger 2001)에서도 동시통역은 통역사가 집중력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여러 가지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집중력의 전략적인 안배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정보처리 자원의 안배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동시통역의 과정에서 통역사가 정보처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통역의 과정 또는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규명할 수 있다면 그 전략을 통역사 훈련과정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으로 동시통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태형(2005: 140)에서도 “통역사는 부족한 정보처리 능력으로 가장 오류가 적은 동시통역을 해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때 통역사가 취하는 각각의 전략은 그 문장의 통역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명의 통역사의 통역결과물을 분석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영한 동시통역을 수행한 두 통역사가 사용한 전략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사B는 EVS(청성시차)가 통역사A보다 길게 유지하여 연사의 발화를 다 듣고 난 후에 발화를 시작했으며 결국 시간 내에 발화를 끝내지 못했다. 이태형은 “통역사의 전략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현상을 계량화하여 연구할 수 있다면 동시통역의 원리를 밝힐 수 있고 그 결과는 또 통역사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시통역이 한정된 정보처리 자원을 다중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게 할당했을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통역사가 정보처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이 통역 결과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입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ST와 TT의 차이 특히 그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의 생략을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통역의 과정에서 ST와 TT간에 다양한 변이(shift)가 발생하나 이미경(2012)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그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변이는 생략이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통역사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정보가 누락된 사례는 소수이며 대부분 중복적인 정보, 부수적인 정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생략이 극도의 시간제약을 극복하지 못해 의미단위가 누락된 결과인지 아니면 통역사의 판단에 따른 전략적인 누락인지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실제 국제회의에서 이루어진 동시통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생한 생략의 종류와 빈도 그리고 그 원인을 가늠해 보고자하며 이를 통해 통역의 과정에서 통역사가 취한 전략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Lee, Y.H.(2006)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통역대학원 학생들이 BA 또는 AB 방향으로 통역을 할 때 호소하는 어려움이 차이가 있고 통역의 결과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어의 방향성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지자원의 요구량이 차이가 날 것이며 이는 통역사가 사용가능한 정보처리 자원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 차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됐다. 이에, 영한 및 한영 통역의 결과물에 나타난 생략을 비교분석하여 언어의 방향성에 따라 통역과정 중 발생하는 생략은 차이가 있는지, 어떤 면이 차이가 있는지, 이는 곧 통역사가 취하는 통역 전략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통역사의 재표현에 나타난 생략을 분석하여 그 종류와 생략의 범위 그리고 가능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둘째, 영한 통역과 한영 통역의 방향성에 따라 통역사가 필요한 정보처리 자원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TT의 생략에 있어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통역언어의 방향성에 따른 생략의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 방향성에 따른 생략의 발생이 차이가 있다면 이는 통역사의 정보처리 자원의 사용에 대해 어떤

합의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통역교육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이루어진 전문통역사 4명의 영한 및 한영 동시통역 데이터 각 90분 분량 총 3시간 분량을 전사하여 통역과정에서 발생한 생략을 분류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동시통역사의 정보처리 자원과 시간제약,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역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실제 데이터의 분석과 그 결과를 밝혔으며 4장에서는 통역사가 재표현의 과정에서 취하는 전략과 언어방향성이 통역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생략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토론과 통역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통역사의 정보처리 자원과 동시통역과정에서의 시간적 제약

기존의 통역과정 모형에 관한 연구를 보면(Gerver 1976; Moser-Mercer 1978; Chernov 1978; Seleskovitch & Lederer 1989) 통역의 과정에서 통역사에 의해 발생한 정보처리 과정의 오류를 중심으로 통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어려움의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통역과정에서의 ST와 TT간의 차이는 언어지식이나 주제지식 등 ST에 대한 이해력이나 통역사의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측면에서 정보처리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제로 동시통역의 과정에서 통역사가 정보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은 정보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이고 동시통역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동시통역이라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수반하는 시간적인 제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과 몇 초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데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기인하기 때문이다.

베들리(Baddeley 1986)에서는 통역의 과정에서 작업기억이라는 한정된 정보처리 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기억을 크게 작업기억과 장기기억으로 나누고 작업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기능이 아니라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인지용량을 안배하는 기능을 해서 마치 컴퓨터의 CPU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통역은 이러한 작업기억과 장기기억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로와 파브로(Daro & Fabbro 1994)에서도 작업기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작업기억이란 언어처리를 위해 수용된 정보를 잠시 저장해두는 기억저장소로 저장소로서의 성격과 수용자의 의도에 의해 조정되는 언어처리,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한다. ST는 의미단위 형태로 10초간 작업기억에 머물다가 그대로 사라지기도 하고 언어변환을 통해 통역되기도 하며 언어변환 없이 장기기억에 저장되기도 한다. 또 다음 의미단위와 통합되거나 축약되어 시간차를 두고 통역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언어심리학에서는 작업기억은 주로 읽기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고품의 수행기억은¹⁾ 이해력, 정보처리 속도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여러 연구에서 검증했다(Baddeley 2000; Cowan 2000). 작업기억의 기능이 동시통역의 과정에서 통역사들이 인지 용량을 분산하는 역량과 매우 유사해서 크리스토폴, 데그룟과 윌도프(2003)은 동시통역의 수행에 가장 중요한 세부기술은 효율적인 작업기억의 사용에 기반을 둔 다중처리와 신속한 발화라고 설명한다.

통역과정에서 화자의 발화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경우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통역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게 된다. 작업기억에 기반을 둔 다중처리와 신속한 발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역사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발화를 하게 되는데 이 점이 통역사의 발화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여 이를 통역사의 발화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1) Working memory는 수행기억 또는 작업기억으로 번역되며 언어심리학, 인지언어학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작업기억에 대한 연구와 정보처리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Baddeley, Cowan 등이 있다.

2.2 동시통역과정에서의 시간적 제약과 통역 전략

동시통역의 과정에서 시간적인 제약은 통역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일 뿐 아니라 통역의 전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연사는 평균 분당 120단어에서 빠르게는 180단어의 발화속도로 말하는 데(Gerver 1975) 이 한정된 시간 내에 통역사가 ST를 청취해서 그 정보를 처리한 후 적절한 TT로 전환하여 재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작업에 과도하게 시간을 소요한 경우 결국 다음에 이어지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결국 아무리 단순한 내용의 메시지도 놓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아주 까다로운 내용도 문제없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동시통역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원천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하는 작업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통역이 이루어진 결과는 통역사가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의사소통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무엇인가 노력을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거버(Gerver 1969)는 시간적인 제약이 통역사의 정보처리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동일한 텍스트를 따라말하기와 동시통역을 한 결과를 비교했다. 이 연구는 연사의 발화속도가 빨라질수록 청성 시차, 의미단위당 단어수, 휴지기, 도착텍스트 속도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했는데 연구결과 통역사가 감당할 수 있는 발화속도는 분당 발화속도 150-200단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라 말하기와 통역 두 경우 모두 연사의 발화속도가 분당 112-120단어일 때 가장 적절한 속도로 드러났는데 이는 이 속도에서 휴지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휴지가 가장 짧다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통역사가 연사의 발화를 이해하고 따라가며 통역하기 가장 적절한 속도라는 증거라고 한다. 이 속도를 넘어가는 경우, 통역사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발화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이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누락이 증가한다고 한다.

동시통역의 과정 중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역사는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기존 문헌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대해 어떤 전략이 사용한다고 규정짓기는 힘들지만 통역사는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전략을 적용을 한다고 말한다. 리카디(Riccardi 1998)에서는 “동시통역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략은 장시간 인

지능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통역사의 수행기억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처리를 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처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략은 청성시차인 EVS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는 청취에서부터 발화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최소한으로 하거나 길게 조절하는 전략인데 청취한 내용을 발화하기까지의 시간을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나누어서 통역사의 단기기억에 저장해 놓아야 하는 정보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EVS를 길게 잡는 경우 기억해야 하는 용량이 증가하지만 화자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통역을 하기 때문에 분석이 수월해진다. 반면에 EVS를 짧게 잡는 경우는 기억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의미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통역사는 EVS를 다양한 요소에 의해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언어 조합, 발화의 종류, 연사의 발화 속도, 정보의 밀도, 정보의 중복성, 어순, 문장구성 또는 통역사 개인의 취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어-영어와 같은 언어조합의 경우에는 어순의 차이로 인해 동사를 정확하게 통역하기 위해서는 EVS 길이가 길어지거나 중간에 중립적인 동사를 추가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EVS의 길이에 따라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정보처리용량은 달라진다. EVS의 길이를 조절하는 전략은 동시통역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EVS를 너무 짧게 잡을 경우 의미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너무 길게 잡을 경우 단기기억용량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위험이 따른다. 이에 대해서 키르코프(Kirchhoff 1976)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는 최대한으로 의미분석에 확신할 수 있으면서 최소한으로 기억용량의 부담이 있는 길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지용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정보처리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정보처리 용량이 많을 경우 예를 들어 동시통역역과 같은 경우 작업수행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으며 언어적 오류, 왜곡 또는 정보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역사가 시간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으로는 표현을 간결하게 하거나 축약하게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Gumul 2007; Jones 1998). 존스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표현으로 “really, actually, well”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간결화는 새로운 표현으로 또는 TT의

표현에서 변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시통역을 위해서 통역사는 가능한 발화해야 하는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훈련이 요구되는데 이는 질이 말한 표현을 위한 집중력(Production Effort)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Al-Khanji(2000)에서는 통역사들이 “skipping(건너뛰기)” 또는 “filtering(걸러내기)”의 표현과정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통역사가 의도적으로 중복적인 정보를 걸러내거나 도착언어 독자의 이해에 보다 적절하게 과도한 정보를 건너뛰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걸러내기를 “좀 더 경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발화의 길이를 축약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이루어진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걸러내기, 건너뛰기 등의 전략이 나타났다. 이 전략의 문제는 통역사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표현을 간결화했을 경우 연사가 본래 의도한 “맛”의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일반화 전략이 시도될 수 있다. 존스(1998)에서는 여러 개의 예를 나열하는 경우 모든 예를 전부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일반화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ST의 표현이 TT에 생소하거나 문장구조가 ST 특성을 반영해서 그대로 표현할 경우 의미전달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화하는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물론 ST의 내용에 크게 변이가 발생하는 전략이 통역의 전략으로 시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가르조네(Garzone 2002)는 의미전달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통역사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전략이 시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원종화(2010)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동시통역 전략을 약 31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3가지 항목인 언어적 전략, 인지적 전략, 그리고 문화적 전략으로 나누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이 특정 언어방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데이터는 2011년 5월 개최된 서울 디지털 포럼의 세션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영한 및 한영 동시통역 내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역과정에서 언어방향성에 따른 생략의 비교 이므로 먼저 한영 그리고 영한 동시통역 내용을 유사한 분량이 되도록 선정하고 각각 녹취, 전사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한, 한영 동시통역 데이터 각 90여분 분량으로 총 3시간 분량이다. 전사된 텍스트를 가지고 ST와 TT를 비교하여 생략이 발생한 부분을 분류하고 비교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생략의 범위, 내용 그리고 가능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고 생략의 발생 빈도, 내용, 원인 등이 한영 및 영한 통역의 언어방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분석한 데이터를 수집한 세션은 특정 주제에 대해 3-4명의 패널이 구성되어 진행에 따라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토론 진행시간은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된 세션은 54분과 36분,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 세션은 39분, 19분, 22분 그리고 17분이었다. 세션은 먼저 각 패널리스트의 개별발언을 듣고 이에 대해 패널리스트간의 토론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청중의 질문을 받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의 주제는 연결된 세계에서의 스마트 라이프, 4G, SNS, 디스플레이, 연결된 사회, 디지털 경계 등이다. 한영과 영한 통역 주제가 완전히 일치하는 실제 회의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관계로 가능한 양방향의 내용이 유사한 주제인 회의 데이터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모든 세션의 주제는 디지털 포럼이라는 대주제로 아우러질 수 있는 내용이며 대부분 통역사에게 익숙한 주제이고 특별히 주제지식을 위해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준비한 연설문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논의되는 주제가 급작스럽게 바뀌거나 논리의 전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에 반해 발화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영한 통역의 경우, 연사의 발화 속도는 130-150wmp의 편안한 빠르기로 진행되었고 한영 통역의 경우 250-300spm(분당음절수) 정도의

속도가 유지 되었다. 한영 통역의 경우는 ST의 단어 수로 측정하는 영한 통역과 달리 분당음절 수로 측정을 하며 130-150wpm의 영문 발화속도는 250-300spm의 국문 발화속도와 비교 가능한 속도라고 본다.)

동시통역은 국내 통역대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통역사 4인으로 통역사 전원의 A언어는 한국어이고 B언어는 영어이며, 한계연령 이전에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통역사들이었다. 연령 분포는 30-35세 1인, 35-40세 3인이고 전원 여성이었다.

3.2 분석 방법

데이터의 분석은 먼저 분석할 분량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전사가 이루어졌고 전사한 자료에 대한 원문과 통역을 대조하는 분석을 진행했다. ST와 TT의 대조 과정에서는 전사내용 뿐 아니라 회의 동영상 그리고 녹음 내용까지 참조하여 발화내용 및 억양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ST와 TT의 대조 작업을 통해 얻은 생략부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국제회의통역 경험이 있는 연구자에게 전사된 데이터와 생략이 발생한 부분의 문장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이에 따라 생략의 범위, 내용, 원인을 분류하도록 의뢰했다. 먼저 연구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생략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생략이 있거나 분류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형을 만들도록 부탁했고 질문을 하도록 했다. 먼저 영한 통역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한영 통역 내용에 대해서도 작업이 이루어졌다.

1) 원종화(2010)의 한영, 영한 언어방향성에 따른 전략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원종화의 연구는 실험상황에서 이루어진 측정으로 연사의 발화속도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실제 회의상황에서의 연사의 발화를 통역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사의 발화속도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발생했다.

4. 생략과 언어방향성

4.1 분석 결과

다양한 유형의 생략이 발생했으며 이 중에서는 세부의미단위의²⁾ 생략, 간결화, 중복된 정보의 생략, 여러 개의 나열 중 일부 생략, 문장의 생략, 바꾸어 말하기가 있었고 바꾸어 말하기의 경우 도착어 청중에서 불필요한 정보의 생략과 길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축약이 있었다. 한영통역의 경우 총 생략 발생 횟수는 197회, 영한통역의 경우는 총 161회로 한영 방향으로 통역할 때가 약 30회 정도 더 발생했다. 한영통역의 경우,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생략은 세부의미단위의 생략이었다. 두 번째로 빈번했던 생략의 유형은 표현의 간결화였고 뒤를 이어 중복적 요소의 생략, 나열 중 일부분의 생략이 발생했다. 영한통역의 경우 역시 세부 의미단위의 생략이 가장 빈도가 높았으나 이 외에는 다른 유형의 생략이 거의 균등한 빈도로 발생했다. 영한 통역의 경우 긴 의미단위인 문장의 생략이 한영 통역에 비해 빈도가 높았다 (9:23).

전략	한영통역	영한통역
간결화(일반화)	43	20
중복성 생략	29	26
나열 중 일부 생략	17	12
세부의미단위 생략	93	75
문장 누락	9	23
바꾸어말하기	6	5
총계	197	161

생략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나 그 중 정보처리 과정에서 통역사의 사용가능한 정보처리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연사의

2) 세부의미단위라고 함은 문장 내의 주요정보가 아닌 부수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중복된 정보, 부연설명 등으로 의미전달의 중요한 흐름에는 영향을 덜 미치는 정보덩어리로 본다.

발화를 청취하지 못해서 의미단위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는 생략과 통역사가 전략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판단되는 생략이 있을 수 있다. 데이터의 분석 결과 이 중 후자가 더 많은 경우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발생한 모든 생략 중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생략은 일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한영통역은 총 197회 중 7회, 영한통역은 총 161회 중 13회). 의미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의미단위가 누락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고 문장 이하의 구나 절 단위의 의미단위인 의미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보가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또는 도착언어 청중을 고려할 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예 표현을 간결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통역사가 ST의 내용을 청취하고 이해한 후, 정보의 중요도와 시간적 제약, 정보처리 자원 등을 판단하여 생략할지의 여부를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수정보의 생략, ST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관련된 정보 등의 생략은 TT 청중에게 반드시 전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통역사가 의사소통의 중개자로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음에 대해서 Seleskovitch & Lederer(1989)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세부 의미단위의 생략의 경우는 특히 의미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생략으로 통역사가 전달해야 하는 정보를 평가하여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의미의 흐름과 연관성이 낮은 정보를 생략한 선택적인 생략이라고 판단된 사례가 많았다. 이는 위 4.2의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부 의미단위의 생략은 일반적으로 생략된 내용의 의미단위가 짧고 누락이 되었으나 연사가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생략이었다. 도착어로 표현했을 때 반복적으로 들릴 수 있는 요소로서 생략을 함으로 표현이 간결해진 경우가 있었고 오히려 표현을 했을 경우 앞, 뒤 문맥과의 연계성이 떨어져서 전체 의미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었다. 또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중 역시 화면을 보고 있다는 전제 하에 별도로 화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다른 경우로, 표현을 바꾸어 말한 경우로 의미가 생략된 사례이기보다는 표현이 대체된 경우가 있었다.

세부 의미단위의 생략, 나열 중 일부분의 생략, 중복적인 요소의 생략 등은 정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의미 또는 중복적인 요소였는데 통역사가 전략적

으로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생략이었다. 물론, 동시통역의 결과물인 발화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통역사가 전략적으로 아니면 시간이 촉박해서 의미단위를 누락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누락된 정보의 성격이나 그 길이 등으로 판단할 때 통역사가 청취나 정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생략을 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문장 길이의 의미단위가 전체적으로 누락된 경우는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오류일 수 있는데 정보의 청취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거나 이해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오류가 원인일 수 있다. 데이터의 분석 결과 이러한 오류는 한영통역 보다는 영한통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7:13). 그러나 본 데이터에서는 문장단위의 긴 생략인 경우도 ST의 청취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중복적인 내용 또는 TT 청중에게 불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선택한 생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청취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의미단위에 대해서 TT로 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와는 다른 경우였다. 예를 들어 긴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경우가 있었고 앞, 뒤 문맥과의 연관성 등을 볼 때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TT 청중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사자성어 등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간결하게 의미만을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연사의 발화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어서 발화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고 내용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통역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전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4.2 생략의 종류

4.2.1 세부 의미단위의 생략

ST	이 세션에서는 이러한 역동적인 시장 가운데서 한국에서는 SNS 시장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u>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u>
TT	How will the Korean SNS market evolve in the future?

ST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덴츠라는 광고회사가 일본의 10대들이 모바일
----	--------------------------------------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으로 모바일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10대들을 보니, <u>같은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동아리 하는 친구들, 알바하는 사람들 크게 그 분류를 평균 4개의 동지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한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모바일 커뮤니티가 일본에서 10대들 사이에 굉장히 발전해서 이런 그림인데요,</u>
TT	Few years ago in Japan, there was an advertisement Dentsu. There was a report on how Japanese teens use the Internet or how the Japanese teens used the mobile phones. And when they looked into it, <u>they had roughly four groups. So, on an average, Japanese teens had four "nests". The mobile communications was already quite developed in Japan within the teen communities,</u>

4.2.2 중복적인 요소의 생략

ST	스마트 폰을 출시하고 이 세 서비스가 뜬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 그림, 추이를 보면 딱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점은 <u>예상보다 스마트폰 보급이 너무나도 빨랐다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구요, 스마트 폰이 국내 보급을 통해서 들어오면서부터 소셜미디어로 칭하는 서비스들이 국내에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u>
TT	After the advent of the smart phones, you can see <u>the rise in the popularity of SNS services coincide with the advent of the smart phones. And ..so ..through the proliferation of the smart phones, you can see that, various SNS services, Korean SNS services, began to take momentum.</u>

ST	오프라인 지인 네트워크가 온라인으로 옮겨지는 식으로 한국에서 붐을 일으키는 페이스북이 <u>지금 350만 정도 한국 가입자가 된다고 하는데 500만 선을 넘어서 계속 갈 수 있을까입니다. 350만까지는 얼리 어답터도 많고 자유스럽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500만 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u>
TT	In Korea, Facebook is taking on popularity because there is a boom of what used to be offline meetings to be transformed into online meetings. <u>Up to subscriber based of 3.5 million, the speed is quite fast. But I think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subscriber base to exceed 5 million.</u>

4.2.3 나열 중 일부분의 생략

ST	작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도 10대 히트 상품으로 <u>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를 언급하면서 10대 히트 상품 중에 4위로 소셜미디어라는 카테고리를 묶어 소개한 바가 있는 데요</u>
TT	Last year, Samsung Research Institute ranked the top 10 hit products of 2010 and <u>Me2Day was mentioned among them</u> , and the social media was grouped together as ranking number 3.

ST	그러나 인터넷은 실제로 자신을 많이 알려져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u>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처럼 강하고 끈끈한 관계는 인터넷에서 새로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u>
TT	On the Internet, people want to talk about themselves, <u>Strong links such as blood ties and school ties</u> , they are not formed via the Internet. Rather, the relationships via the Internet are quite loose,

4.2.4 paraphrasing

ST	인터넷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지 살펴 보면, 경쟁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나를 많이 알리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TT	With the Internet era, we can see the people come are competitive are the people who know about other people. the people who know about your competitors are the people who are able to succeed. On the Internet, it'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people who are exposing themselves the most are people who are the most successful.

ST	태평로 클럽이라는 중국 식당에 4-50대 교수님들이 모인 자리에 얼마 전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50대 정도된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에게 미투데이가 10-20대들이 주로 쓰는지 아는데 교수님들이 쓰면 학생들이 쿨한 이미지의 교수님으로 인식을 하고 괜찮다고 소개를 하시는 것을 보며, 재밌게 느끼며 정말 그러냐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떤 면 때문에 미투데이를 쓰는 50대 남자 교수님이 학생들로 하여금 쿨한 이미지의 교수님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TT	You must be feeling hunger by now. I am sure you know about this restaurant. Few days ago, I was invited to a meeting of professors in the age bracket between 40 to 50. Now, professors in the fifties asked other professors. "I have heard that the teens are very fervent about Me2Day these days and if professors take that up you will be considered one of the cool professors." And when I heard this I though it was quite interesting. And on my way home, I though to myself why would male professors in fifties using Me2Day be perceived by his students as cool professor? That's the question I

	asked myself.
--	---------------

ST	10명 그룹은 정보가 될 만한, 혹은 재미있는 것을 주로 올렸습니다. 반면에 커플들은 빈 교실같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사진인데 훨씬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사진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u>이 실험을 통해 이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니 ‘제가 올리는 것은 마치 내 남자친구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올리고 본 애들은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u>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논문에서 용어로 정리한 것이, ‘친근하게 비주얼을 통해 함께 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풀어내었습니다.
TT	The group of 10 upload pictures that were news worthy. However, if you look at the pictures on the left, they uploaded pictures that were apparently seemed meaningless, just snapshots of their daily lives. But, the frequency of uploading the photoes were much higher among the couples. <u>If you look at the couple’s pictures, you can feel a sort of sense of communication made between the guy and the girl.</u> So the conclusion of the paper was, the visual information was being used as a means to feel the affinity. So, it overcomes the distance and allow them to feel sense of affinity and being together.

4.2.5 간결화

ST	미투데이 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능 중에 하나가 막 흔들면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친구맺기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워커힐에서 미투데이에서 흔들시면 제가 나오는 앱을 작업 해놓고 왔는데, 심심할 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TT	Here, we have a <u>function that allows you to become friends with the person that you are meeting.</u> I have also put up an app that allows you to become friends with me since you have become friend with

	me here. So, if you have time, I would like you to try that.
--	--

ST	<p>주말에 저도 가끔 아이들과 야구장에 갑니다. 야구장을 찾는 우리들의 일상만 보더라도 몇 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날씨 좋은 봄철 주말은 나들이 인파들로 길이 붐비기 때문에 아는 길이라도 저는 꼭 스마트폰의 T Map 네비게이션을 켭니다. 실시간 최단거리를 안내해주기 때문입니다. 야구장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켜지는 주차 안내 서비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빈 곳을 찾아 바로 주차를 합니다. 멤버십을 가진 야구팬이라면 T Smartpay 덕택에 따로 지갑이나 멤버십카드를 챙기지 않고도 입장권 구매나 기념품 쇼핑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결제도 하고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p>
TT	<p>Over the weekend, if the weather is good, I take my kids to the baseball stadium. And it has actually changed quite dramatically if I think about how it was like several years ago. The weekends are nowadays very crowded meaning the roads are now very crowded. So, I turn on the T map service because I can see which is the shortest way and the least congested way to the baseball stadium. I don't need to waste my time finding the parking spot. If you are a baseball fan, T smart pay will help you in having easier access to the stadium. You can purchase the souvenirs with your mobile phones and you can earn the points as well as the discounts.</p>

4.2.6 문장 생략

ST	<p>그래서 저희는 sns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가지 서비스들이 과연 국내에서 어떻게 자리잡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p>
TT	<p>So, I want to say that our orientation is toward connecting people</p>

	and creating more connected society. []
--	--

ST	거기에 비해 소셜 미디어들이 대중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의 시작이고 대중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올해, 내년을 계속 두고 봐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TT	So, we feel that we are seeing the beginning of the environment that caters to the development of such services. []

4.3 언어방향성과 전략으로서의 생략

언어방향성이 통역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TT 결과물에 나타난 방향성에 따른 오류의 차이에 관한 연구인데 특히 한영, 영한 통역 결과물에서의 오류를 비교한 Lee, Y.H.(2006)의 연구에 따르면 영한 통역의 경우 좀더 의미오류가 빈번했으며 문법적인 오류 등의 언어 사용상의 오류 그리고 표현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언어 사용상의 오류가 한영통역의 경우 전체의 72%를 차지한 반면 영한 통역에서는 28%에 불과했다는 격차를 보여준 바 있다. 이를 통해서 영한 통역의 경우는 의미오류가 빈번한 반면 한영 통역의 경우는 언어적 오류에 취약하다는 결론을 말한바 있다. 원종화(2010)에서는 통역 전략의 방향성 연구에서 통역과정에서 전략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역사별 특성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유사하다는 실험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한통역에서 통역사의 전략은 추가, 문장 분리, 구조적 변화 등 텍스트적 요소와 표면적 형태에 정보처리자원을 안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영통역에서는 생략, 바꾸어말하기 등의 의미전달을 염두에 둔 전략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발트로미에지크(Bartlomiejk 2006)에서는 BA통역과 AB통역시 통역사가 더 빈번히 사용하는 전략이 있다고 말하면서 BA의 경우는 ST의 이해에 정보처리 자원을 더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용이한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AB의 경우에는 표현을 위한 노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영한 및 한영 통역 데이터에서 분류한 생략의 유형은 그 빈도는 차이가 있으나 발생 종류는 유사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영한 그리고 한영 통역 모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생략은 세부 의미단위의 생략이었다. 이는 문장 내의 주요 의미단위가 아닌 부수적인 정보로서 전체의미의 전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미단위의 생략이다. 이러한 생략은 전반적으로 전체 의미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오류나 생략이 아니다. 세부적인 의미 단위의 생략은 통역사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통역사의 정보처리 자원을 비축하거나 시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는 통역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문장 길이의 큰 의미 단위가 생략된 경우는 그리 빈번하지는 않았으나 한영 보다는 영한 통역의 경우에 더 빈번했다. 일반적으로 큰 의미 단위의 생략은 통역사가 연사의 발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정보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니면 앞의 의미단락이 통역사의 정보처리 자원을 모두 소진하여 이어지는 단락을 듣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의 표현을 하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간략하게 바꾸어 말하기로 대체한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볼 때 한영통역보다는 영한통역의 경우 통역사는 ST의 이해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TT의 표현전략으로서 좀 더 청취와 분석에 할애를 함으로 통역전략으로 간결화, 바꾸어말하기 등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본 데이터에 나타난 결과로는 문장 길이의 생략인 경우도 의미의 전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생략이었기 때문에 이는 정보처리 자원의 안배와 관련된 결과라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한영 통역의 경우에는 표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생략의 발생 빈도가 연사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빈도의 차이는 텍스트의 차이이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통역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통역사에 따라 생략의 발생빈도가 차이가 있었고 연사가 언급한 주제가 동일하고 발화속도나 그 외의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사 즉, 텍스트에 따라 생략이 발생하는 빈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역사에 따라서 생략을 빈번하게 선택하는 통역사와 매우 꼼꼼하게 누락 없이 이어가는 통역사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영 통역의 경우, 통역사 A는 바꾸어말하기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 통역사 B는 세부의미단위의 생략 전략을 선택한 경우가 더 빈번했다.

5. 결론

동시통역의 경우 오류나 생략 등 메시지의 전달과정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번역이나 순차통역과는 달리 의사소통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역의 특성상, 청중은 구어로 전달되는 통역내용을 한 번에 듣고 즉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흐름을 끊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해에 지장을 주거나 청중의 머릿속에 의문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시통역을 듣는 청중은 연사의 발화 그리고 통역을 동시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되는 내용의 정확성이나 충실성에 대해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생략 등의 충실하지 못한 전달이 발생할 경우 의사소통에 더욱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통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통역이 실패로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면 이는 통역사가 자신의 사용가능한 정보처리 자원을 안배하여 ST의 정보를 이해하고 TT로 재표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보처리 자원의 안배는 당연히 통역사가 정보자원을 이해에 좀 더 할애해야 하는가 아니면 표현에 좀 더 할애해야 하는가라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는 통역사가 사용하는 통역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실제 국제회의 상황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 통역사들의 통역 결과물이고 이 통역사들은 통역대학원 학생이나 경험이 적은 통역사들에 비해 통역언어의 방향성에 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한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영, 영한 통역과정에서 통역사는 정보처리 자원을 안배하기 위해 다양한 통역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전략은 표현을 위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확실히 밝힐 수 있었다. 특히, 부수적인 의미단위의 생략이 세부의미단위의 생략이 단연 다른 어떤 종류의 생략보다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면 통역사는 가능한 소요되는 집중력을 최소화하고 사용가능한 정보처리자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동시통역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언어의 능숙도 역시 통역사가 취하는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한영통역의

경우 두 번째로 빈번한 생략종류가 간결화 그리고 이어서 중복표현의 생략이라는 점이다. 반면 영한통역의 경우는 중복표현의 생략, 간결화 등의 여러 생략이 거의 비슷한 빈도로 발생했다. 다만, 영한통역의 경우 문장 전체가 누락되어 의미의 큰 덩어리가 생략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빈도가 23회나 발생했다. 이는 한영통역과 비교해 볼 때, 청취를 위한 집중력을 할애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청취하지 못한 결과 이해를 못하고 결국 전체문장의 누락으로 이리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다.

물론 본 연구의 목적이 ST와 TT 간에 나타난 변이 중 생략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추가(addition)과 같은 전략이 취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나 전반적인 통역사의 표현 전략은 정보처리 자원을 안배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통역사가 취하는 다양한 전략 그리고 TT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통역이용자인 청중의 입장에서 동시통역을 평가한 연구 결과, 청중이 원하는 양질의 통역이란 무조건적으로 ST의 모든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통역이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있다(Kurz 1993; Moser 1996). 청중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의미의 일관성(sense consistency), 논리적 응집성(logical cohesion), 정확한 용어의 사용(correct terminology) 순서였다. 한편 Viaggio (2002)에서는 때로는 의미전달의 효과, 적합성을 최대한으로 강화하기 위해 일부 표현의 생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통역의 충실성에 대한 정의를 때로는 새로운 시각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연사의 발화와 통역사의 통역을 동시에 듣지 못하는 청중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충실성 그리고 정확성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경우 다양한 통역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고려할 수 없어서 통역사는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하기보다는 방어기체가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통역사 자신들이 엄격한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생략은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생략이 동시통역 과정에서 중요한 통역전략이라는 점은 충분히 근거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통역교육의 일부로 반영해야 한다.

참고문헌

- 성종환 (1997) 「동시통역시 발화오류의 대처방안 연구」, 『논문집』 1: 161-183.
- 원종화 (2010) 「영-한 동시통역 전략의 방향성 연구」, 『통역과 번역』 12(1): 131-156.
- 이유아 (2008) 「동시통역 학습자들의 통역 오류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 35: 99-117.
- 이미경 (2011) 「수행기억과 동시통역과정에서의 정보처리의 차이」, 『번역학 연구』 12(1): 167-189.
- _____ (2012) 「동시통역과정에서의 오류와 전략적 대응」, 『통역과 번역』 14(2): 127-151.
- 이태형 (2001) 「영한 동시통역의 생략 오류 연구」, 『번역학 연구』 2(1): 2-27.
- _____ (2005) 「통역사의 정보처리 전략과 동시통역의 정확도」,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7(2): 139-155.
- Al-Khanji, R. et al (2000) 'On the Use of Compensatory Strategi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Meta* 45(3): 548-557.
- Baddeley, A. (2000) 'The episodic buffer: a new component of working memory?'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4(11): 417-423
- Barik, H.C. (1975) 'Simultaneous interpretation: Qualitative and linguistic data,' *Language and Speech* 18: 272-297
- Bartlomieczyk, M. (2006) 'Strategies of simultaneous Interpreting and directionality', *Interpreting*, 8(2): 149-174.
- Chernov, G. (1979) 'Towards a Psycholinguistic Model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Linguistische Arbeitsberichte* 7: 225-260.
- Cowan. N. (1999) 'An Embedded-Processes Model of Working Memory'. In Miyake, A. & P. Shah (Eds.).
- _____ (2001) 'The Magical Number 4 in Short-term Memory: A Reconsideration of Mental Storage Capacit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4, 87-185.
- Garzone, G. & M. Viezzi (eds.). (2002) *Interpreting in the 21st century*.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erver, D. (1975) 'Empirical studies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review and a model'. *Translation: Application & Research*. 165-207.
- Gile, D. (1995) *Basic Concept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 John Benjamins.
- Gumul, E. & L. Andrzej. (2007) 'The Time Constraint in Conference Interpreting'. *Research in Language* 5: 165-183.
- Jones, R. (1998) *Conference Interpreting Explained*.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 Kurz, I. (1993) 'Conference Interpretation: Expectations of Different User Groups', In Phchhacker, F. & M. Shlesinger (eds.), 312-324.
- Lee, Y.H. (2006) 'Comparison of Error Frequency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into B vs. B into A,'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 143-153.
- Marcias, M. P. (2006) 'Probing quality criteria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8(1): 25-43.
- Moser, P. (1996) 'Expectations of users of conference interpretation', *Interpreting* 1(2): 145-178.
- Petite, C. (2005) 'Evidence of repair mechanism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A corpus-based analysis', *Interpreting* 7(1): 27-50.
- Pochhacker, F. & M. Shlesinger (eds.) (2002). *Interpreting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iccardi, A. (2002) 'Evaluation in Interpretation: Macrocriteria and Microcriteria', In: Hung, E. (Ed.). (pp. 115-126).
- Seleskovitch, D. (1978)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Washington: Pen and Booth.
- Seleskovitch, D. & Lederer, M. (1989) *A Systematic Approach to Teaching Interpretation*. Trans. by J. Harmer. Luxembourg: Didier Erudition. Washington, D.C. Pen and Booth
- Shlesinger, M. (2001) Strategic Allocation of Working Memory and Other

Attentional Resourc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Bar Ilan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aggio, S. (2002) The quest for optimal relevance: the need to equip students with a pragmatic compass. In Garzone, G. & M. Viezzi (eds.) 229-244.

[Abstract]

**Language Directionality and Omission as Strategy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Lee, Migyong
(Kyung Hee University)

Simultaneous interpreting involves a complex deployment of concomitant tasks for which the interpreter needs to strategically allocate her available processing capacity to transfer Source Language message into Target Language. According to studies, simultaneous interpreters are able to carry out different tasks under severe time constraints characteristic to simultaneous mode of interpreting attributable to working memory span and strategies to overcome time constraint. In the course of strategically allocating limited amount of working memory for different tasks, the interpreter will search for ways to use minimum amount of processing efforts for maximum meaning delivery, which will be manifested in her Target Language re-express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interpreters are utilizing omission as a strategy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process by examining omissions that occur in actual conference interpreting data by 4 conference interpreters. For the study, authentic data was collected from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osted in Seoul. The types of omissions, their frequencies as well as possible cause of their occurrences are examined. In addition, interpreting data of Korean into English and English into Korean are compared to see the implications of language directionality on interpreters' choice of strategies for re-expression. Although some of the time saving strategies used by interpreters seemed to violate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in interpreting, the strategies helped interpreters overcome time constraints and ease cognitive load as well as enhance the

communicative relevance of Target Language expression.

▶ Key Words: simultaneous interpreting, directionality, strategies, omission, information processing, working memory

이미경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migyonglee@khu.ac.kr

관심분야: 동시통역, 통역교육,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15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5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3일